

'더부살이 설움' 성남보호관찰소 야탑청사 문서고.회의실 설치 마찰

기사입력 2019-03-15 15:42 최종수정 2019-03-15 16:16

| 성남지소 "보호관찰 업무 안해"...주민 "사전 설명도 없어 반대"

| 성남지소 "보호관찰 업무 안해"...주민 "사전 설명도 없어 반대"

[서울신문]



15일 성남 분당구 야탑동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 야탑청사 앞에서 주민들이 보호관찰소 입주를 반대하기 위해 모여 있다. 2019.03.15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문서고와 회의실로만 쓰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이렇게 마찰이 없을 것인데 몰래와서 문서를 옮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가 '야탑청사' 문서고와 회의실 설치를 싸고 또 논란이다.

2013년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임차청사를 마련하여 이주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입주를 못하고 이재명 전 시장의 중재로 성남시청에 6년째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수원보호관찰소성남지소가 좁은 사무공간 해소와 보호관찰소 기능 유지를 위해 야탑동 소재 야탑청사에 문서고(3층, 39㎡)와, 비정기 회의·직원교육 장소(4층, 2개실 127㎡)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입주를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대해 성남지소 관계자는 "이번 문서고 설치와 회의실 조성은 불가피하게 2010년부터 공실로 관리되어 온 야탑청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들이 걱정하는 보호관찰 업무는 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조타운 문제만 해결 된다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야탑청사는 현재로선 문서고와 회의실, 직원 교육장으로 사용할 것이고 직원들도 상주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론도 들어보지도 않고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서를 옮기는데 나중에 보호관찰소 전체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며 믿을 수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공무원들의 일방적 조치에 반대하며 보호관찰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주민은 “설명회도 않고 입주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보호관찰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42명의 직원이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26명, 수원보호관찰소에 8명, 성남시청에 8명 등 기관이 6년째 3곳에 분산 근무를 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지소는 2010년 5월 성남 분당구 구미동에 소재한 신축 청사 예정부지와 구 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 건물을 교환하여 보호관찰소 청사로 활용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대상자 출입하면 위험하다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성남지소는 그동안 직원회의와 보호관찰 자원봉사자 간담회 등 업무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시청, 민간시설을 빌려서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사무공간 확보 차원에서 야탑청사 3층·4층에 일부 공간을 문서고·회의장 등으로 조성, 활용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 서울신문 추천하면 우리집에도 공기청정기가?
-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서울신문 페이스북]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81&aid=0002983885>